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31 2025 Vol. 946



미주 기독일보가 1월 25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창간 2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기독일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기독일보

"미주 한인 커뮤니티 밝히는 신앙의 등불 되어"

기독일보 창간 21주년 영김 연방하원의원 축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란 표어 아래 미주 교계의 연합과 화합에 힘써온 기독일보(대표 이인규 목사)가 25일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본당에서 창간 2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는 양국민 목사(함께하는 주은혜교회 담임)의 찬양과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인도로 시작됐다. 강태광 목사는 "기독일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며 예배로 인도했다.

개회 찬양에 이어 강문수 목사(OC목사회 회장)는 "오늘은 기독일보가 창간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서선교라는 특별한 사명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끝내 인내하며 모든 소임을 다한 임직원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22주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기독일보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이어주는 브릿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서 위브릿지 교회들이 "주의 은혜라"를 특송으로 불렀고, 이흥주 장로(Gem Tech Jewelry 대표)가 성경을 봉독한 후,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일보의 사명이다"라며 "글만 쓰고 소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위브릿지 사역, 성경필사 사역을 하고 계신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 줄 모른다. 진리를 고수하고, 타협하지 말고, 모든 교회, 모든 젊은이, 모든 어른부터 2-3세까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기독일보가 되길 축원한다. 어떤 거룩한 도전을 주실까 기대된다"고 설교했다. 토마스 맹, 주디 한 기자

➔ 3면에서 계속

남가주 교계 세대교체 활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수석 부목사인 김인찬 목사(46세)와 공동담임 목사 체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지난 1월 22일 제직 모임을 통해 결의했다.

신승훈 목사는 제직회의에서 김인찬 수석 부목사 공동 체제를 제안했고, 교구장, 목자, 국장, 부장 및 모든 제직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에 따르면, 신 목사는 2년 전 후임 목사를 부목사 중에 찾아야겠다는 감동을 받았고, 목회 협력 위원 장로들과 논의한 결과 김인찬 목사를 공동 담임으로 추천했으며, 이어 제직 모임에서도 모두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

신 목사는, "자신은 선교에 빚진 자로서 공동 담임 기간에는 좀 더 선교에 참여할 것이고, 공동 담임 기간이 끝나면 온전히 선교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100%는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고, 격려하며,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장점을 더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공동 담임으로 동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찬 목사는 KPCA(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D.Min GM)과정에 재학중이다. 2012년부터 13년째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인찬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이윤준 기자

"무제한 낙태 권리, 중단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열리는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영상 축사를 통해, '낙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1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집회에 영상 메시지에서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시대 가장 친생명적·친가족적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 잘못이 3년 전 바로잡혔다. (그 역사적 잘못은) 재앙적이고 위헌적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역사적 잘못'이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선언한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앤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말한다. 그 판결은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사건으로 인해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됐다.

이대웅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사고와 '헤어진' 이지선 교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해피 엔딩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이자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 초청 간증집회가 24일(금) 오후 7시 30분 새생명비전교회, 25일(토) 오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 29일(수) 오후 7시 30분 베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진행된 간증집회에 선 이지선 교수는 전신 55%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과 재활치료를 거치며,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자각과,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는지 간증했다.

"생사의 기로에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었다."

"사는 건 죽는 것보다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살아남는 일은 이렇게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시금 떠올렸던 것은, 의식이 돌아온 후 처음 마신 물 한 모금의 시원한 맛이었다. 참 사소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해 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갔다."

"피부 이식이 끝나고, 딱지들 다 떨어지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숟가락에 비친, 빨갛고 눈썹 없는 얼굴을 보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더 이상 사고 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나니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다. 선택은 두 가지, 아파트 옥상을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 하나님께 따져봤지만, 대답이 없으셨다."

이지선 교수는, 목사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나, 그가 기다렸던 응답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를 살게 하신 것이라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목사님이 제 옆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꽤 괜찮은 헤피엔딩'의 저자이자 이화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 초청 간증집회가 24일(금) 오후 7시 30분 새생명비전교회, 25일(토) 오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됐다.

부르시며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기다렸던 응답은 아니었다. 원래 얼굴로 회복되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 여기가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 엔딩이 있어'라고 하신 것 같았다. 그 해피 엔딩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기적처럼 주어진 하루를 힘들어도 하루씩 꽉 채우며 살아왔다. 신기하게도 이 삶에도 희로애락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삶을 사는 기쁨을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고 싶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환자는 아닌, 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의례를 받았다. 제게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음의 보호막이 찢어져 버리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 '회복'을 넘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한 가지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상처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이 뼈 아픈 진실 앞에 선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 교수는 '깨진 꽃병' 비유를 통해 상처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다.

"내 인생에 이것만은 깨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깨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미의 태에서조차 나오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라고 자신을 부정해 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누군가는 산산조각이 난 꽃병의 조각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더 이상은 무엇이 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흉터와 상처의 조각들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끝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던 그 불행한 사건이 더이상 오늘의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일로부터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고와 그렇게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디 한 기자

인공지능, 설교와 논문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신앙 공동체 성장 프로젝트

북미 한인사회와 아시안-아메리칸, 지역교회들의 신앙 공동체 성장 프로젝트 이른바, TCI(Thriving Congregations Initiative)를 진행 중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총장 최규남)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AI ChatGPT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Lilly Endowment inc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시작됐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설교, 논문, 자녀학습을 위한 ChatGPT 세미나 ⓒGMU

지난 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AI ChatGPT 세미나에서 TCI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이병구 GMU 박사원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ChatGPT는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줄 것" 이라며, "앞으로도 TCI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선교, 지역사회 한인 리더십개발, 목회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AI ChatGPT를 활용한 목회 설교와 논문작성, 자녀교육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됐다.

미션어웨이크 김광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선 1부에서는 목회자들은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교준비 팁들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AI 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인공지능 AI ChatGPT가 가진 보다 전문적인 영역의 기능들을 소개함과 더불어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문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눴다.

마지막 강의인 3부에서는 AI Mission 이충희 목사가 AI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자녀들의 학습 교육법과 원리를 소개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무제한 낙태 권리...〉에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와 위기 임신 센터에 대한 급진 좌파의 공격을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법을 무기처럼 집행하려는 시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에 의해 박해받은 기독교와 친생명운동가들을 석방하겠다"며 "그들은 기도하고 신앙에 따라 살아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 나는 방금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생명을 위한 행진' 하루 전이던 지난 1월 23일, 낙태시술소 입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친생명 활동가 20여 명을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사면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된 이들 23명은 다수가 노인들"이라며 "그들은 기소돼서는 안 됐다. 여기에 서명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낙태 지원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 비영리단체가 美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낙태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도입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도입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했다.



OC목사회 창립 47주년, 회장 이취임식 성료

OC목사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5시에 새로운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며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설교에서 김용철 목사(칼빈신학대 교수)는 '목회자의 사명'(행 20:24-28)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많은 이들이 가정, 자녀, 일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온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살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민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교회의 전도 대상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이다. 만약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사탄이 양들을 도둑질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며 본질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함께 이민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해 바울처럼 '깨끗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다.

축사를 한 심상은 목사(OC교협 증경회장)는 "강문수 목사님은 인격이 좋으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친목을 넘어서 목회자들을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OC 목사회 회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활동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축사를 한 이창남 목사(OC교협 회장)는 "얼마전 여론 조사 결과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하락되고 있어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순위인 12위를 기록했다. 1위가 간호사. 2위는 초등학교 교사, 목사 바로 위에 자동차 정비사였다"면서 "목사로서 사역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강문수 목사님을 세워졌는데, 멍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 교협과 목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길 기도한다"고 했다.

권면를 한 김영찬 목사(효사랑 대표)는 "강문수 목사님이 47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강문수 목사님이 모든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목사회 합창단 기획되었다. 앞으로 목사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한 직전회장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는 "처음 목사회에 왔을 때 쓰러져가고 있었다. 이곳에 와서 기둥을 세워놓고, 은행 어카운트, 행정적인 여러가지를 하고 대들보까지 올렸다. 이제 야구경기로 치면 목사회가 새롭게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목사(칼빈신학대 교수), 이원석 목사(OC목사회 46대 회장), 강문수 목사(신임회장), 이창남 목사(OC교협 회장) ©기독일보



OC목사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5시 갓즈훼밀리교회에서 새로운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며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독일보

취임사에서 강문수 목사(로뎀나무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직이 명예가 아니고 멍에를 멘 사람이라 생각하고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정찬군 목사(수석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에서는 손태정 목사(주성선교교회)가 기도를 했고 OC여성 목사회가 특별찬양을 했다.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직전 회장 이원석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 목사 모합창단의 특별찬양, 권영호 목사(남가주새생명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미주 한인 커뮤니티..." 〉에 이어서

영김 의원 영상 축사

설교에 이어 영김 연방하원의원(CA 제40선거구)과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영상축사가 있었다.

영김 의원은, "지난 21년 동안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신앙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헌신해 오신 귀한 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경필사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리더들에게 신앙과 비전을 심어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은 시대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신 열매라고 믿는다. 이런 사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많은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축사했다.

정서영 목사는 "지난 21년 동안 신앙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중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이 시대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영김 의원은 기독일보의 사역을 시대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사역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목사는 "위 브릿지 사역을 통해 LA 지역 교회와 교회를 잇는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1년처럼, 다가오는 22년에도 주님의 기준을 굳게 지키며 정론직필해 주시길 바란다. 세상이 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회복과 치유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재성 박사 격려사 "복음의 얼굴로, 교회들의 구심점으로"

김재성 박사(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는 "어제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들이 잠깐씩 쉬면서 기독일보를 보시더라. 또 지난주에는 안과에 갔는데 일간 신문 중에 대부분의 내원객들이 기독일보를 보고 있었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잠깐이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 속에 접속할 수 있는 인쇄된 매체로서의 신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복음의 얼굴로서, 교회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 내길 바란다"며, "또한 기독일보의 중심사역인, 성경필사 노트를 보았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있는 유대인 대학에 가서 토론할 시간이 있었다. 성경필사는 유대인도 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초점이 있다.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와 사역을 따라간 것이다. 이것이 보배가 되는 것이다. 남은 생애도 그 축복 속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온 세상 위하여"를 폐회 찬송으로 부른 후, 류종길 목사(미주 사중복음연구소 소장)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무리했다.

디사이플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부흥회

2월 7일-9일 (금-주일)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초청해 '근원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2025 부흥회를 2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7일 오후 7:30, 8일 오전 6:30과 오후 7시, 9일 1부와 2부 예배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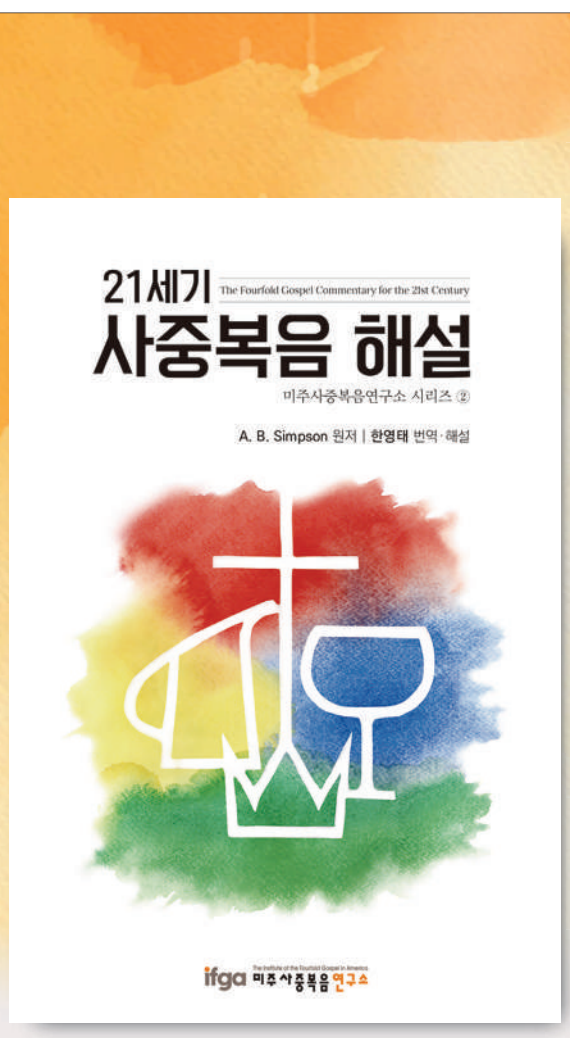


이찬수 목사는 분당우리교회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을 파송하는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해 2022년 29개 교회를 분립했다.

주소: 17502 Daimler Street Irvine CA 92614
문의: (949)502-4923

"지금은 기도할 때" 국가 특별기도회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오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와 31일(금)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LA지역과 OC지역에서 개최한다. 특별기도회에서는 한국과 한국교회,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LA화재 극복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문의:** 213-384-5232(미주성시화운동본부)



12811 Elmrock Ave., La Mirada, CA 90638

The fourfold Gospel Commentary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 사중복음 해설

A. B. Simpson의 사중복음을 읽읍시다!

사중복음 한영대조 원조 교과서를 통해
온전한 복음의 깊이를 만나보세요!

구입 방법

미국에서는 1-323-422-6570 (Jongkil Ryu)로 $18을 Zelle로 송금하시고,
text로 주소를 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한국에서는 010-2203-6257에 주소를 문자로 주시고,
국민은행 098-24-0343-563(류종길)에 18,000원을 입금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송료는 모두 연구소가 부담합니다.

ifga The Institute of the Fourfold Gospel in America 미주사중복음연구소

남가주 장로협의회 제50대 회장 이 취임 감사예배 성료

서경원 장로 이임 · 이득표 장로 취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는 지난 1월 26일(주일)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성결교회에서 제50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장로협의회의 신임 회장 취임과 직전 회장의 이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예배는 한철수 장로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윤경미 교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 379장(주의 말씀 듣고서)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증경회장 하기언 장로가 기도를 맡았고. 성경봉독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이 선포되었다.



남가주장로협의회 제50대 회장 이 취임 감사예배 단체사진. ⓒ장로협의회

이날 설교는 세리토스 장로교회의 유효석 부목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장로로서의 헌신과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겸손과 섬김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임회장 서경원 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뒤이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득표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겸손과 기도로 섬기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9대 회장 서경원 장로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신임회장 이득표 장로에게는 축하패가 전달되었다. 특히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노성배 장로와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김향로 장로, 기독교방송 대표 남철우 목사가 축사를 전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범을 축하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지난 1월 26일(주일) 오후 4시 LA에 위치한 나성성결교회에서 제50대 회장 이 취임 감사예배를 성대히 거행했다. ⓒ장로협의회

이득표 신임회장은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을 소개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총무 이승대 장로가 광고를 맡았으며 이어진 찬송 382장(허락하신 새 땅에)을 부른 후 유효석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최종혁 장로의 식사 기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쳤다. 장로협의회 기사제공

남가주 목회자·평신도 대상 이단 세미나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 ⓒ미주복음방송

최근 급증하는 이단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가주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뭉쳤다.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이단 세미나' 가 오는 2월 18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 내 이단의 실체와 교회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과거 20년간 신천지에서 총회 교육장 및 담임 강사로 활동하다 탈퇴 후 현재 예장 합동 이단 상담소장과 구리초대교회 담임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신현욱 목사가 ▲미주 내 이단 단체들의 현황 ▲이단의 조직적 포교 전략 분석 ▲교회와 성도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내용으로 강의를 펼치게 된다.

또한 이날, '미주바이블백신센터' 의 센터장인 에스라 김 목사가 강의 전, 미주 내 이단 단체 활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세미나 후엔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의 구출, 탈퇴자 회복 등 이단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가주동신교회의 백정우 목사는 "다음 세대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교회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미주복음방송(714-484-1190)

한편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도 OC 지역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2월 19일(수) 오후 7시에 (문의: 714-680-9556), LA 지역은 나성영락교회에서 2월 26일(수) 오전 10시에 (문의: 323-227-1400) 각각 개최된다. 김민선 기자

전인코칭전문학교 과정 시작

GIFT전인코칭전문학교(이하 GWCI, 원장 리디아 전 박사)에서 국제코칭연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코칭학교의 첫 걸음을 뗀다.

2025년 첫번째 과정 오리엔테이션은 줌 온라인 채팅을 통해 2월 3일(월) 오후 7시 30분, 11일 (화) 오후 6시, 대면모임 15일(토) 오전 9시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에서 열린다. 모두 서부시간이며 오리엔테이션은 한번만 참석하면 된다. 첫번째 기수는 2월 25일 시작한다.

GWCI는 전인적 웰빙을 이뤄가는 여정을 통해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과정이다. 원장 리디아 전 박사는 임상 심리학 박사로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 왔다.

GWCI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CF(국제코치연맹) 국제 코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및 CCE과목을 한국어로 제공하며, 리디아 전 임상 심리학 박사 및 ICF 인증 코치(Psy.D. PCC)와 조셉 전 의학박사(M.D.)가 지도하고 있다. 상담학 석사 학위공부는 2-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GIFT에서는 실무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전문인증을 취득하고 즉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크리스천 전인 코치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샬렘국제대학교 석사학위과정과 연계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상담학 석사 등 많은 공부를 했지만 전문인 자격증이 없는 이들에게 미국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제 전문 코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공하며, 전인적 코칭 접근법으로 특화된 다양한 코칭 훈련 프로그램 - 정신건강 코치, 라이프 코치, 시니어 코치, 영적 코치, 리더십 코치 -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www.giftcoachinginstitut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 화요일 오후 5:30
■ 금요일 오후 5:30
■ 주일 오후 2:30
회복기도의 집
박태욱 목사 T.(213)500-0480
3054 W 8th ST. STE 204, LA, CA 90006
1. 치유와 축사
2. 대적기도
3. 거룩한 신앙생활
4. 일반적인 영적전쟁
5. 차원높은 영적전쟁
6. 마지막 시간을 위한 훈련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행복이란,
소중한 이와 좋아하는 곳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
당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000명 시니어의 현명한 선택
새로운 행복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한미동맹은 정치적 동맹 넘어 기독교적 동맹”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 감거협 등 3개 단체 주최 세미나서 발제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23일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광화문 본부에서 ‘트럼프와 한국 기독교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31차 감리회 거룩성 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 기독교’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명수 박사는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적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다양한 인종에도 공통점은 하나님의 존재와 가정의 가치를 귀히 여긴다는 점, 둘째, 유럽에선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급을 금하지만, 미국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얘기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식 복음주의의 강조”라고 했다.

박 박사는 “일각에선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미국의 고립주의는 미국의 전통”이라고 했다.

그는 “냉전 이후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홍콩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를 대상으로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반대해 한국과 미국·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은 세계의 자유질서 유지를 위해 파트너 국가를 항상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00년대 초 유럽을 견제하고자 일본을, 2차 대전 당시 일본을 제어하고자 소련을, 냉전 당시 소련을 제어하고자 중국을 지원했다”며 “이제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파트너십을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적극적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명수 박사는 “한국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가 있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 개신교의 최대 성공적 선교지였다”며 “한미동맹은 정치적 동맹을 넘어 기독교적 동맹의 성격이었다”고 했다. 그는 “1884년에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조선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다. 우리 민족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해 3.1운동 원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하지만 미국 기독교는 달랐다”고 했다.

이어 “19세기 부흥운동으로 설교 열기가 고조된 미국은 조선을 중요한 선교지로 생각해 학교, 병원, 교회 등을 세웠다. 미국 선교사들은 한반도에 서양문명과 기독교를 전하는 통로가 됐다.

일제시대 한미관계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냉전 시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주의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는 미국의 최고 관심 지역이 됐다”며 “냉전은 단순 군사적 차원을 뛰어넘은 종교적 전쟁이었다”고 했다. 박명수 박사는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공격하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하나로 하여 공격했다”며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기독교의 후원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준(準) 국교가 됐다. 이런 냉전 시기에 기독교는 최고의 부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발전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에 성공하려면 한국정부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잘 연결돼야 한다. 왜냐면 한미동맹의 승패는 트럼프가 귀를 기울이는 복음주의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래 종교와 관계가 없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는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 폴라 화이트 케인(Paula White Cane)을 만나 그의 신앙의 전환기를 맞았다”며 “화이트 케인은 트럼프 1기 당시 대통령 종교담당 특별보좌관이었다. 이후 트럼프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됐고,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트럼프의 신앙은 최근 그의 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 “최근 트럼프의 장남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총격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간증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가치를 견지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뿐”이라며 “트럼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춘 조건을 지닌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중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가치를 전파하는 강력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연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복음연대를 통하여 복음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합심으로 기도했다. 앞서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은 ‘선지자 나단의 용기와 지혜’(사무엘하 12장 1-10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 목사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야 간 정치투쟁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세우는 세력과 반성경적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라며 “우리는 나단 선지자처럼 용기 있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설파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진리와 복음의 성루에 서자”고 했다. 송경호 기자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제31차 감리회 거룩성 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홍 목사 “한국교회, 야인정신 회복해야”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가 “한국교회는 야인정신(野人精神)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8일 이런 제목의 ‘아침묵상’에서 “보수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신앙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선한 의지가 결여되기 쉬운 점”이라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격정신과 야인근성(野人根性)이 약하여지기 쉽다”고 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곧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이르셨다”며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죄 많은 세상을 피하여 교회당 안에 머물러 편안을 누리려 한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뿐더러 성경적 전통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죄 많은 세상이라 하여 정치나 경제나 교육 그리고 문화를 악인들 손에 맡겨 두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가짐”이라며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능력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30세 되던 나이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개척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을 청년들과 같이 넝마주이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그때 인생살이 최악의 밑바닥에서 시작한 일을 자랑스럽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넝마주이 단체의 왕초 노릇을 한 동안 하면서 전투력을 길렀다. 야인정신을 체득(體得)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내 54년 목회 생활에서 중도에 그때 몸으로 익힌 전투력과 야인근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요즘 들어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나라 판이 개판으로 나가고 있는 듯하기에 그때의 정신과 그 시절의 전투력을 다시 회복하려 한다”며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결심”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절망 끝에, 재개한 성경 필사... 그리고 찾아온 변화

기독일보 제2회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
30명에 장학금 $1,000씩 전달



제2회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이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장학생들과 후원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지난 1월 25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본당에서 기독일보 주최 제2회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기독일보 창간 21주년 감사예배에 이어 진행된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은 이시안 집사,박성호 목사(ANC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진행됐다. 성경필사 장학생들의 간증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장학생들을 위해 축복기도 했다. 이어 마원철 목사(리페어서번트 대표)가 특송을 부르고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이 격려사를 나눴다.

이상명 총장은 "창간 21주년을 축하한다. 기독일보는 공동체를 하나로 잇고 묶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교회와 교회를 잇는 위브릿지 사역과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이어주는 성경필사 사역은 기독일보가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는 주요 사역"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지원한 자녀들이 성경 6권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했다. 여러분들이 필사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라며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격려사를 한 국윤권 목사는 "차세대 리더 양성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질 것이다. 성경 필사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 다니엘 같은 킹덤 리더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말씀을 한줄 한줄 써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했다. 특별상 수여식에서는 헌신상에 김주은 학생, 신실상에 정훈(호칭 생략), 은혜상에 박기쁨, 믿음상에 한기원, 지혜상에 김희서, 더디오상에 김사랑이 각각 수상에 영예를 차지하고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헌신상을 받은 김주은 학생은 소감을 발표했다.

"성경필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서 신앙이 흔들렸고, 이 기회에 담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들어서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은 제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제 친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과 고립감을 느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저를 발견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저를 좌절과 의심으로 가득 채웠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몇 달간의 절망 끝에, 저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성경 필사를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 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함과 힘을 찾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필사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성경의 말씀은, 격려와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신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은 제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다. 저는 제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제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대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합격 통지는 마치 하나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재확인시키며, 그분의 계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다."

이인규 목사는 인사말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사역을 힘닿는 데까지 하려 한다. 이 아이들이 후원자가 될 미래를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셨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제2회 성경필사 장학금 수여식은 센터메디컬 그룹의 Jay Choi 대표, 셀리온 김창현 대표, Crover inc. 대표 신동철 장로의 물품 후원과 후원금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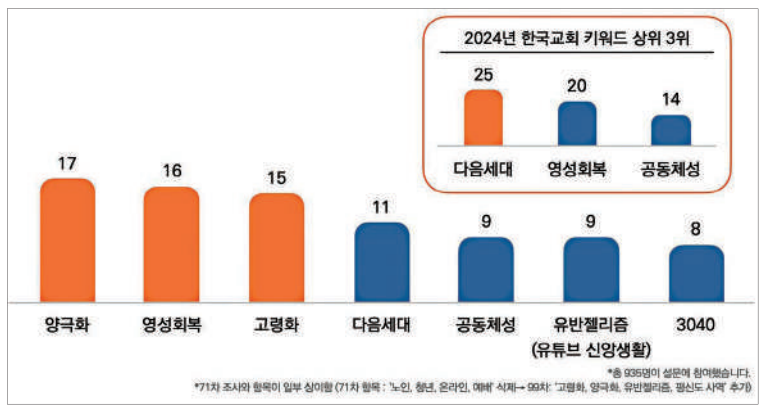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기독일보 성경필사 장학금 행사는 센터메디컬 그룹,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담임 박성호 목사), 인랜드 ANC온누리교회(담임 윤창렬 목사), B&S 그룹(주부권 CEO), BTS 솔라(폴 김 목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이상명 총장)을 비롯해 총 교회 및 단체, 개인 총 47곳이 후원했으며, Ariel Jiyo Kim(Sunny Hills High School), Cindy Kim(UC-Santa Barbara), Daniel Lee(칼 스테이트 LA), Daniel sarang Lee(USC)을 비롯해 총 30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 30명에게 각 $1,000씩 수여됐다. 장학생들은 6개월에 걸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을 필사했으며, 이날 이들의 필사 노트가 교회에 전시되었다.

토마스 맹 기자

2025년 한국교회 키워드 1위 '양극화'… '영성 회복' '고령화' 뒤이어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교회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양극화'(17%)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영성 회복'(16%)과 '고령화'(15%)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구독자들에게 한국교회 관련 키워드 10가지를 제시한 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진행됐다. 1월 13~26일 설문이 진행됐으며, 목데연 구독자 중 935명이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1~3위 키워드와 더불어 '다음세대'(11%)와 '공동체성'(9%)이 뒤를 이으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1월 같은 주제로 진행된 '2024년 한국교회 키워드' 조사 결과와의 차이다. '다음세대'(25%)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영성 회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1위로 꼽힌 '양극화'는 한국교회 내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의 격차, 성도 간 신앙 수준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극화 현상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국가적·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이념 갈등은 세대, 지역, 빈부 격차와 더불어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지난 12월 "한국 정치의 심각한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NYT는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 간의 갈등과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됐고,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갈등이 폭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오판이 아닌, 한국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편 '고령화' 역시 올해 주요 키워드로 선정되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세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목회적 과제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데연

송경호 기자



2024년 이란 기독교인이 받은 징역형은 총 250년… 6배 증가



ⓒSina Drakhshani/ Unsplash.com

미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 신앙 때문에 다시 체포된 기독교인 3명이 고문을 당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편지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런던에 소재한 종교 자유를 위한 비정부기구인 '아티클 18'은 이달 이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오픈도어, 세계기독연대(CSW), 미들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과 협력해 발표됐다. 2024년 이란 기독교인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250년으로 2023년 보고서에 비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에 따르면, 기독교인 96명이 받은 징역형의 총합은 263년이었으며 37년의 국내 추방, 약 8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티클18'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이란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인 139명이 체포되었고, 80명이 구금되었으며 77명이 기소되었다"며 "2024년 말 18명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신앙과 관련된 형을 복역하고 있었다. 구금된 기독교인이 신체적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자한기르 알리카니(Jahangir Alikhani), 하메드 말라미리(Hamed Malamiri), 골람 에샤기(Gholam Eshaghi)의 기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정보부는 앞서 2023년 12월 이 세 명과 함께 20명을 체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RGC 요원들은 이들을 다시 체포해 사리의 구금센터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이들은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 지난 2024년 11월 발표된 아티클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를 전파하고 외국 정부와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4년 11월 17일 이들 세 명은 10억 토만(약 1억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석방되기 전 이들은 장기간 심문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받았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보고서는 "그들이 풀려난 날, 이 그룹의 다른 구성원인 자바드 아미니가 다시 체포돼 사리 구금센터로 이송됐다"라며 "아미니의 아내인 파르자네 아마디가 집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고, 몇 분 후 남편의 휴대전화와 성경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는 요원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원들은 이후 세 번째로 방문해 여러 권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 아미니의 기독교 신학 연구와 관련된 노트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정보부와 IRGC 요원들은 아미니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의 아내를 심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아미니와 다른 두 명의 기독교 개종자는 2024년 11월 27일 10억 토만(1만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아티클18 합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미니, 알리카니, 말라미리, 에샤기 등 8명은 석방 전 나우샤르(Nowshahr) 형사법원 102지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기소장에서 이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이라크, 혼인 가능 최저 연령 9세 "여성 · 아동권 종말"



ⓒ유튜브 영상 캡처

쿠이라크 의회가 혼인 가능 최저 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춘 9세까지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아동권리운동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이라크 현행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한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에 따르면, 혼인 가능 최저 연령은 15세다.

법률 개정을 주장한 보수 시아파 의원들은 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추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방의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에도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돼 이혼 합의금이나 양육권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인권운동가들은 단호히 반대하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모하메드 주마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여성권과 아동권의 종말이 왔다"고 규탄했다.

이라크 사자 하심 기자는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여성으로서 나의 삶에 온갖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인권운동가이자 이라크여성연맹 회원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성인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라크에서 아동 결혼은 오래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아동의 조혼,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을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육 중단으로 인해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트럼프,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포함한 행정명령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상 캡쳐

CNN 보도… 코로나19 백신 거부로 제대한 군인도 복직

미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금지 등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 두 명의 발언을 인용한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 금지 ▲미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제대한 군인의 복직이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정책에 있어 보수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은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 이를 금지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해당 금지를 철회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행정명령 계획을 예고했다. 그는 "오늘 국방부 내 DEI 제거, 코로나19 명령으로 인해 제대한 병력 복직,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등 더 많은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명령이 신속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DEI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 내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연구기관 팜 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만4000명의 성전환자가 미군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무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군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번 행정명령은 군대 내 문화와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는 물론 DEI 정책 폐지는 군대 내 조직 문화를 다시 보수적 방향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제대한 병력의 복직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홍은혜 기자

멕시코 교계 "트럼프 정책 환영… 추방 · 경제적 영향은 우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및 외교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멕시코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이슈에 대한 그의 보수적 접근에 지지하면서도, 대량 추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주와 마약 불법 거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무역 거래에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입국 예약을 용이하게 하는 'CBP원' 앱을 중단하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위한 항공 입국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는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냈다"며 "이번에 취한 모든 조치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트럼프는 "정부는 '불변의 생물학적 현실'에 따라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고, '성 이념'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없앨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연방 이니셔티브가 불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종료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며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는 "우리는 조정하고 협력하지만,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멕시코의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최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냈다. 시민 이니셔티브와 이베로-아메리칸 라이프 앤 패밀리 컨퍼런스의 릭 아론 라라(Lic. Aarón Lara) 대표는 스페인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셰인바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 담론은 민족주의적이며, 국가를 경제 지도의 축으로 홍보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민간 및 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멕시코와 마약 카르텔의 관계는 미국의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송금의 중요한 역할도 강조했다. 그녀는 "역대급 규모의 송금은 수천 명의 멕시코 가족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돼 왔다. 대량 추방은 이러한 경제적 흐름을 심각하게 감소시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로 멕시코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처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기독교소통연맹 이사로 활동 중인 오마르 아얄라(Ommar Ayala) 기자는 "멕시코의 복음주의 교회는 대량 추방과 오랜 적응 과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요즘 우상숭배는 드물다? 현재진행형의 위험!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롭 브루넌스키 박사의 기고글인 '요즘 우상숭배가 드물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You think idolatry is rare these days? Think again)을 2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브루넌스키 박사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데저트 힐스 성경 교회의 목사 겸 교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우상숭배는 오늘날 사회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으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은 우상숭배를 나무, 진흙, 금속으로 만든 조각상을 숭배하던 원시 문화와 관련된 과거의 일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나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



롭 브루넌스키 박사. ⓒ기독일보 DB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우상숭배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블레셋이나 앗수르, 바벨론 같은 외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 부도덕, 안식일 어김, 빈곤, 물가 상승, 불의 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를 지적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했고, 예레미야는 더욱 날카롭게 이 점을 강조했다. 에스겔도 같은 점을 반복했으며, 호세아서는 우상숭배의 끔찍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모스, 요나, 미가 역시 우상숭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경은 이방 민족에서도 우상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한다. 로마서 1장 25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된 이유가 우상숭배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오늘날의 우상숭배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들은 모두 원인이 아닌 증상일 뿐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단지 불신자나 이방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외적으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신약 성경은 교회 내에서도 우상숭배가 명백하고 현재진행형의 위험이라고 경고한다(요한일서 5:21).

우상숭배의 정의

우상숭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성경적 정의는 단순히 조각상을 숭배하거나 거짓 종교 체계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상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갈망하는 모든 것이다.

사랑: 어떤 대상에 대한 헌신.

신뢰: 어떤 대상에 대한 의존.

갈망: 마음의 애정과 열망.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는"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갈망하는 어떤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분이 금하신 것을 더 갈망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 금지 명령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많은 명령이 있다. 그중 핵심은 십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여기서 "내 앞에"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한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의미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형상이나 조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뿌리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속여 육체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그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

최승연 기자

방글라데시 선교단체, 설립 50주년 맞아 기념행사

리벤젤러미션인터내셔널(Liebenzeller Mission International)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방글라데시침례교협회(Bangladesh Baptist Church Sangha,이하 BBCS)와 오랜 협력 관계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 행사에는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부서장인 다니엘 마트뮐러와 미하엘 케스트너, 발데마르 리에스, 사무엘 슈트라우스 등 전현직 선교사 800여 명이 함께했다.

베네딕트 샤우너 선교사는 "우리는 50년 동안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목도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 선교 사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자극이 시작됐다. 리벤젤러 선교사로서 우리는 신학 훈련, 어린이 공동체, 개인 관계성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기여로 감사와 칭찬을 받았다"고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교단인 BBCS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의해 시작됐으며, 그는 1793년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으로 알려졌을 때부터 사역했다. 이후 BBCS는 영국 침례교선교협회의 지원을 받고 1995년 이후 수많은 부족 교회를 흡수하며 성장해 왔다. 현재는 10개 지역에 350개 교회, 150명의 목사, 20,000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 리벤젤러미션인터내셔널의 사역은 1974년 알버트 선교사와 매리언 렉케머 선교사가 샬럿 앤더스와 게트루드 엔드리히 선교사 자매와 함께 주립병원에 도착한 때부터 시작됐다. 오늘날 리벤젤러미션인터내셔널은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방글라데시에서 신학 연구와 사회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다카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한 마을에서도 관련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200명의 목사가 참석한 이틀간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주님마음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가나안 성도 회복을 위한 '비전 크루즈'

12주 '비전 찾기 과정' 완료 후 '전략 모색' 위해 크루즈 떠난다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를 다시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 비전 크루즈를 기획했다. 비전 찾기는 2/9-4/27, 비전 크루즈는 5/5-9에 진행된다.

"교회가 각 개인의 비전을 찾아주고, 비전 실현을 돕는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 없다"

코비드 이후, 사일런트 엑소더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크리스천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을 섬기는 샬롬 김 박사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에 다름 아니라며, '주님께서 다 키워 놓으셨는데,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기 위해 '가나안 성도 회복 위한 비전 크루즈'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된 그들의 이전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새 기회를 주신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럼, 왜 그들은 교회를 나갔을까? 원인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것은, '교권주의', '교회의 일방적인 태도', '불협화음' 등이지만, 그는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분석한다.

그간 성도들은 교회가 교회 프로그램 중심, 목회자와 당회 중심, 교회 비전 실현에 초점 맞추고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이 교회 성장과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그것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신 선배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박사는 이제 그 열정 위에 새 패러다임으로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면 work hard 뿐 아니라 work smart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가 win-win 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새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새 프로그램은 그간 해왔던 것을 upside-down 하는 것입니다. 그간은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다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사람낚는 어부' '양을 치는 목자'의 비전을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대한 진리, 보혈과 성령을 주시면서 지원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원을 받은 12명과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비전 영역으로 퍼져 나가며 세계 선교가 되었다"고 말한다.

성도들이 왜 힘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식게 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이상해진 교회를 떠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분들이 아닐까. 교회를 실망해서 안 나가던 분들이 비전을 찾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를 만난다면 그들이 교회를 안다닐 이유가 없다.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에서 모델 교회로 섬기는 VisionLife. Church 비전라이프.교회는 믿음 위에 성도들의 비전을 찾아주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비전 크루즈'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2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2주 동안 매 주일 오후 1시 '비전 찾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예배, 식사, 세션으로 구성되며 대화를 통해 비전 멘토와 멘티가 함께 비전을 찾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는 '비전 DNA 분석' 같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도 포함된다. AI 기술을 접목시켜, 더 정교하게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1단계를 마치면, 2단계로 5월 5-9일, 4박 5일 멕시코 무료 크루즈 여행을 하며 비전 실현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다.

등록비는 교회 등록자 주일 오후 1시 반은 교재비 90불이며, 수강료와 멕시코 크루즈 비용 1,100불은 전액 지원한다. 주중 화요일 오후 7시 줌(Zoom) 반은 교재비 45 달러, 수강료 300 달러, 크루즈 250 달러(50%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Vision Mentoring International, VMI)을 통한 비전 찾기 사역을 비롯해, 시니어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생명의 서〉, 하나님의 경영원리에 대해 설명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 등을 저술해 많은 호응을 받은 샬롬 김 목사는, 비전라이프교회(Visionlife.Church, VLC)를 개척해, 비전 멘토링의 샘플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

등록문의:비전라이프.교회 www.visionlife.church , **전화** 213-926-3425

주디 한 기자

센터메디컬 스프링양로센터서 건강 세미나 성료



센터메디컬클리닉 송홍우 주치의가 스프링 양로 센터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미데컬 그룹

한인 시니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센터메디컬그룹 산하 센터 메디컬 클리닉 3호점인 로렌하이츠점 송홍우 주치의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

1월 29일 진행된 이번 건강 세미나는 가디나 지역 스프링양로보건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 시니어 약 12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하여 노인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시니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고, 감기, 독감, 코로나19, RSV 등 유행성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송홍우 주치의는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나누었다. 송홍우 주치의는 LA 동부 및 로렌하이츠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력있는 주치의로, 시니어을 위해 정기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참여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활발한 소통 속에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센터메디컬그룹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클리어백 기념품을 제공했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메디컬그룹의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예약 및 문의는 아래 번호로 상담할 수 있다. **조셉 리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센터메디컬클리닉 3호점 로렌하이츠점 직통 번호: (626) 363-4661
주소: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사우스배일로대학 한의학 선교 세미나

한의학을 활용한 선교 비전 세미나가 사우스배일로대학에서 2월 13일(목)에는 애너하임 캠퍼스에서, 2월 18일(화)에는 LA 캠퍼스에서 각각 오후 3시에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을 통한 의료 전문인 선교 사역의 비전, 선교 현장의 전문가 사례를 나눈다.

또한, 한의대 입학 절차, 졸업 후 진로, 정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에게 특별 장학금 혜택도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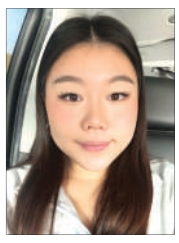
사우스배일로대학교가 주최하고,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베델 교육재단이 후원한다. 한의학을 통한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모든 분들

한의학을 통한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관심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714-533-1495, 714-533-1495
학교 홈페이지: southbaylo.edu

성경필사 장학생 헌신상

믿음과 이해의 여정



김 주 은 학생
West Ranch High
School Grade 12

성경 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해하는 특별하면서도 도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과 헌신으로 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서 신앙이 흔들렸고, 이 기회에 담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들어서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로서, 재정적 제한과 비자 문제 때문에 꿈꾸던 대학과 직업적 목표들이 멀어 보이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은 제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려움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저를 좌절과 의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 희망 없음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책과 원망으로 가득 찬 제 생각은 신앙을 텅 빈 껍질처럼 느껴지게 했고, 성경 필사의 동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분노와 짜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제가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꿈꾸던 대학에서 거절 편지를 받았을 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 거절은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시험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절망 끝에, 저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성경 필사를 재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 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함과 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필사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격려와 희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신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말하는 구절들은 제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1-2절은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은 제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대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는 마치 하나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재확인시키며, 그분의 계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순간들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 기록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여러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쓰게 해 주신 인내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부터 그분의 가르침을 제 행동에 반영하려는 힘까지,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이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삶에 실천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제 여정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병일 칼럼

남성 사역 소개 (1)



이 병 일 목사
맨 인 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헤엄치며 사업의 성공이 나의 목표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청장년기를 이곳 L.A.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민자로서의 잠재된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고 이런 두려움은 잘나가던 사업의 실패와 함께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3대 째의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왔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은 만남은 더욱 없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하면 되고 나는 오뚝이처럼 일어날 거라고 큰 소리도 쳐보며 자신을 위로도 해 보았지만 제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암담 하였습니다. 끈질긴 친구의 권유로 영성 수련회를 찾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그분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짜네!!진짜야!!"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나와 같은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네 삶을 바로 이 남자들을 위해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 가슴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보니 세상과는 다르지만 교회안의 문제의 중심에도 역시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찾기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전념 하며 동시에 미국안에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남성들을 위한 운동을 찾아다니기 시작 하였습니다.

Arizona에서 열리는 Promise Keepers 라는 남성 운동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야구장을 가득 매운 크리스천 남성들의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서로를 얼싸 않으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를 겪으며 교회 안과 밖으로 떨어진 남성들의 위상을 경험하며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미주 L.A. 1기에 참여 하며 지난 20여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의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보았고 가정이 회복 되고 남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감동의 순간의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L.A County Men's Central Jail 의 Chaplain(경목) 을 자원하여 약 7년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의 아버지의 부재가 심각한 가정과 사회적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 자신을 남성들을 위한 사역자 즉 남성 사역에 헌신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변에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을 비롯한 한인 사역자들에게 남성 사역을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남성 사역? 뭐 하는 건데??' 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남 선교회? 각종 중독사역? 아!! 아버지 학교? 그런거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반응 하십니다.

맞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모든 사역은 남성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좀 더 총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더욱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물론 평신도 리더나 사역자들도 예배 인도자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목양을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본을 보이는 성경적인 남성의 모델이 되어 주길 기대하고 계실 것 입니다.

다음 번에는 우리 한국과 이민 한인 교계의 남성 사역의 현주소와 기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이상기 칼럼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상 기 목사
평강교회 원로

지난 1월 25일 저녁 7시 안디옥장로교회당(CA)에서 교회 설립자 김상규 원로목사의 부인 고 김정숙 사모(86세)의 천국 환송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예배 중 아들 김경진 국제법 변호사가 가족을 대표하여 조사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많은 조문객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Los Angeles 한인타운에 살 때 자신의 나이는 5살이었고 2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햄버거 가게가 있어서 자전거 뒤에 동생을 태우고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햄버거를 사 달라고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주지 않으셨답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주고 싶었지만, 당시의 형편상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자신도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을 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한때 방황하던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이 어렵게 마련한 작은 집을 팔아서 지금의 교회당을 구입할 때 건축헌금으로 바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을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자신과 동생 가족이 받은 모든 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햄버거를 배불리 먹게 하지 못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응답하여 아들은 국제법 변호사가 되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대통령들에게 귀한 만찬을 대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필자의 둘째 달이 6~7년 전에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78년생으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에서 몸에 열이 나 학교 간호사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자인 필자가 섬기던 교회의 K 장로님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장로님이 학교를 방문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햄버거 가게를 들르셨습니다.

그때까지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해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먹어, 지금도 그때의 맛과 K 장로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이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암소(사모)가 밭을 갈아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너무 미안해! 그리고 엄마 사랑해!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신 고 김정숙 사모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사신 겁니다. 분에 넘치는 받은 복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랜 세월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고백하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을 크게 감사했습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오늘날 현존하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음악 장르에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는 돈 모엔(Donald James Moen, 1950 -)입니다. 그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의 대표로도 활동하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입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987년 3월 돈 모엔의 아내인 로라 모엔(Laura Moen)의 여동생 수잔(Susan)의 가정에 닥친 비극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 필프스(Craig Phelps) 그리고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콜로라도의 리조트로 스키 여행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텍사스 팬핸들(Panhandle)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들 가족이 타고 가던 밴이 18륜 대형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돌이 얼마나 강하게 펼쳐졌는지 뒷자리에 있던 네 자녀가 모두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좌석에서 나와 밴 뒤쪽에 마련된 침대에 누워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중상을 입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만 의지해 엄마와 아빠는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근처 울타리 옆에 누워 있는 9살 아들 제레미(Jeremy) 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목이 부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크레이그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소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제레미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광야에 45분 동안 앉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세 아이는 다행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접하며 9살 난 제레미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돈 모엔은 다음 날인 1987년 3월 19일 비행기를 타고 오클라호마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는 이사야서 43장에 그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에 깊은 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 모엔은 바로 그 구절에 운율이 떠올랐고 즉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노래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장례식에서 부르려고 노트에 그 노래를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서 그 노래를 대신 불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돈 모엔은 수잔과 크레이그를 품에 안은 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한 노래를 주셨다"고 말하며 비행기 안에서 스케치 한 그 노래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신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잔이 나중에 부엌 싱크대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약 2년이 지난 1989년 돈 모엔이 앨라배마주 도탄의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슬픔에 잠긴 그 가족을 위해 작곡한 그 곡을 예배에서 부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라"라는 감동을 주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때 그 노래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에 돈 모엔은 인테그리티 뮤직의 수요 직원 경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며 이 곡을 다시 부르며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마치자 사운드 엔지니어 볼드윈(F. G. Baldwin) 이 돈 모엔 에게 다가와 그 노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녹음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몇몇 스태프들과 논의한 끝에 "영원한 신" 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에 이 노래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돈 모엔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이 곡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뱅크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의사의 리포트에 좋지 못한 기록이 적혀있어도 실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기때문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시련은 결국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갖고 그 곡을 소개하며 그는 종결을 맺었습니다,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1898-1963) 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쇳물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자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 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루이스는 궁극적으로 축복받은 영혼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돈 모엔을 사용하셔서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의 시기, 특히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축복받는 영혼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Music Festival

Action Camp 장은…


Camping


Church Retreat


PCT Hiker


Youth Group Retreat


Cabin Town


Movie Night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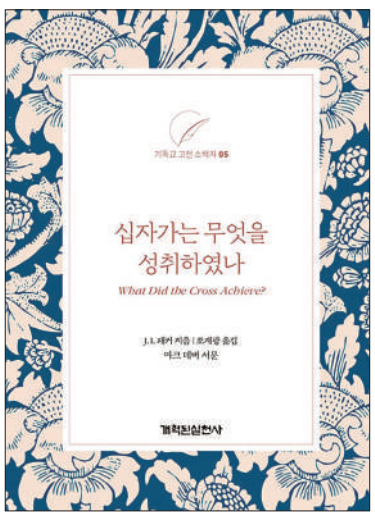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의 필독서

십자가의 속죄, 그 아름다운 교리 지켜내고 선포하기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하였나
제임스 I. 패커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148쪽 | 9,500원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무죄한 자를 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한 명의 일시적 죽음이 어떻게 많은 이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껏 죄지을 무제한의 허가증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J. I. 패커는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분석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굳게 수호한다. 이 책은 형벌적 대리 속죄에 관한 20세기의 가장 중차대한 작품 중 하나로서 여러 걸출한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리즈 다섯 번째 책이다. 이 시리즈는 첫째로 짧은 역사적 글들을 고품질의 종이책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둘째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16쪽).

제임스 I. 패커는 이 시리즈를 보급하는 개혁된실천사에서 찰스 스펄전, 토머스 찰머스, B. B. 워필드, 마르틴 루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소개한 저자이다.

책의 서문을 쓴 마크 데버는 패커에 관해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고, 유쾌했다. 그의 정신은 늘 활기를 띠었고, 개념들의 의미를 숙고할 때는 특히 더 그랬다(11쪽)"라고 평가했다.1973년 틴데일 하우스 강연회에서 전달한 '십자가의 형벌적 대리 속죄의 성격'에 관한 패커의 가르침은 데버가 평가한 패커의 특징을 잘 담고 있고, 그가 우려하는 비평가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형벌적 대리 속죄의 성격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누군가에겐 십자가 형벌의 대리 속죄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의 삯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고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 관점'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가르침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생겼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

패커는 역사적으로 1578년 소시누스가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형벌의 대리 속죄 개념을 논박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동시대 안셀무스의 합당한 반박에 이어, 끊임없이 전통적 관점에서 성경이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패커는 소시누스가 사용한 합리주의적 설명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십자가 형벌의 대리 속죄가 신비로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합리적 논증과 설명으로 변호된 매력적이지 못한 교리가 되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면 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 형벌의 대리 속죄 성격을 부정하려는 걸까? 많은 경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헤아려 볼 때 성자 하나님께 너무도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또 불공정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째로 대리 속죄 성격을 십자가에서 제거한다면, 하나님 고유의 거룩한 속성들이 보호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큰 공격과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소개하는데, 사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다면, 아니 이유가 있었지만 죗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부의 성품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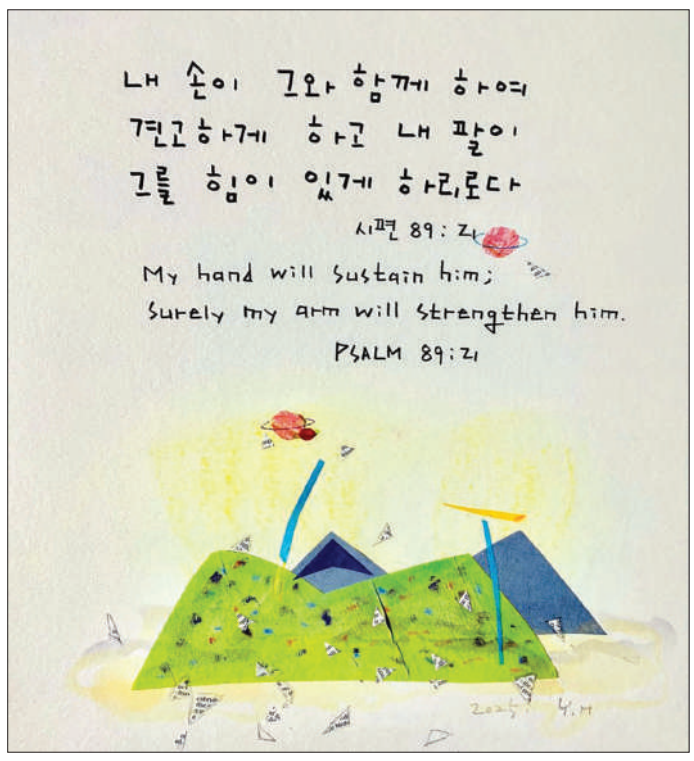
둘째, 십자가 형벌의 대리 속죄 성격을 제거할 때, 기독교는 자유주의 풍조의 영향을 받은 온갖 인본주의적 도전과 공격에 맞설 능력을 상실한다. 한 예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강력한 기독교적 핵심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인 죄,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죗값을 치르셨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반박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그들의 논리, 즉 십자가는 무한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패커가 쓴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하였나〉는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소책자이지만 많은 개념이 등장하고, 논증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티브 제프리와 마이클 오베이 등이 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대리 속죄의 영광 회복하기〉와 같이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룬 좋은 서적도 큰 유익을 주지만(Crossway, 2007), 패커의 소책자를 통하여 독자는 1970년대보다 훨씬 더 부정하려는 세력이 거세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리 속죄라는 아름다운 교리를 지켜내고 또 선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카라바조의 '카라바조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1601)'. 자세히 보면 예수의 빵은 두 쪽으로 쪼개진 후 다시 합쳐진 상태인 반면, 제자들의 빵은 그대로다. 이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이며, 오늘날 가톨릭 미사 중 성체성사를 연상시킨다.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한길사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韓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도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죄인들 섬기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 작품 속에

자신 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 담아
기독교 무관심 또는 반감 가진 이들
미술 작품이 마음 열 기회 제공할 것

이도선은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창작생활을 줄곧 이어왔다.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작업은 대체로 등대, 사람, 깃발, 나무 등 유년의 기억이나 마음 속 풍경을 길어올린 것들이며, 들판과 산을 가로지르는 길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길이기도 했다.

2015년 교직에서의 퇴임을 계기로 성경의 서사를 조형으로 풀어낸 회화를 선보인 이후, 올해에는 밀알미술관(10. 10-16)에서 '성경 속의 풍경', '믿음의 영웅들', '오 예수'를 테마로 한 연작을 발표하였다.

퇴직 이후의 작품을 망라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의 작품 추이를 조감할 수 있어 좋았고, 밀도 있는 바탕과 짜임새 있는 구성 등은 그의 작품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이중에서도 눈길을 끈 작품은 '오 예수' 연작 중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란 작품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었다고 했으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었든지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 일반적인 결혼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으러 온 것만 해도 짐작이 간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린다.

화면을 보자. 우물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그리스도, 오른쪽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배치시키고, 배경에 몇몇 인물들이 낙심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주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인은 손을 펴서 그녀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 주제는 역대 화가들에 의해 애용되어온 소재인 만큼, 이도선은 그림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자 했다. 사실적 재현을 피하고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것이나 인물 표현을 가로세로로 엮어 모자이크처럼 나타낸 것 등은 지금까지 보아온 도상과 다른, 그만의 창의적인 표현법으로 생각된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는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는 장면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가버나움 회당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죽기 직전 자신의 외동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이다. 그리스도는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치료하고 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열두 지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의 주류 신앙 밖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사회적·종교적·인종적으로 차별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류 시민으로 지탄을 받았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다. 화면 후경에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것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확실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만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축복이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줌으로써 축복하셨다.



이도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73x50.2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3.

심지어 예수님은 투옥, 고문을 당했을 때조차 가해자에게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하셨다.

제임스 헌터(James D. Hunter)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게 그 분의 나라는 축복하고 짐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즉 새로운 왕국의 실제적 현존을 제시하셨다고 보았다. 힘의 과시와 권력 추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아니며, 그것들을 동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기독교 문화의 원형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기원한 모델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도선은 죄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다. 만일 예수님이 여론 동태를 살피셨다면, 비탄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바뀐 사마리아 여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시는 사랑(self-emptying love)'이야말로 구속자의 성정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우리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적인 가치' 또는 '지적 욕구', '탁월한 솜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 '교육적 가치'를 덧붙이고 싶다. 미술 작품을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배경과 줄거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술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림의 독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것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도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73x50.2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3.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은 풍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의 서사에 기초한 그의 작품이 기독교에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역시 SNS로 지인들에게 정규적으로 작품 이미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도 밝고 아름다운 화면에 관심을 드러낸다고 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에 그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 존중에 기초한 문화 확산을 위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과에 쫓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예술 향유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자유민주주의 위기…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지켜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열려… 김정민 목사 · 전한길 강사 등 연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세 번째 집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열렸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도 수만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동참해 함께 기도했다.

그레이스선교교회 예배팀의 찬양과 세이브코리아 공동준비위원장 주요셉 목사의 시작기도로 시작된 기도회에선 먼저,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 김정민 목사 “자유민주주의 잃어버릴 위험천만한 상황”

김 목사는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십수 년 전 저희 아버지(故 김홍도 목사)께서 이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설교하셨다”며 “뿐만 아니라 30~40년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내다보시고, 공산주의 실체에 대하여 강단에서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다. 이어 “작금에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 바이러스로 물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낙심해선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정치적 싸움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흔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시민의 부르짖음인 줄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바란다”며 “하나님, 완악함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쫓아간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을 죽이고,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자기가 장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를 봉독하고 “저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임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서 메시지를 전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이다. 우리에겐 정치 체계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다.

◆ 손현보 목사 “자유민주주의 지켜야만 신앙 지킬 수 있어”

손 목사는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회가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월등히 많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알고,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웠기에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우리의 자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며 외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 국가 지도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기도

다음으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가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우리가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왕들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선 안 된다”며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했다.

◆ 전한길 강사 “왜 비상계엄 했는지, 실체 알게 돼”

이후 ‘2030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한국사 전한길 강사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좋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과 전체·공산주의의 북한 정권이 싫다”고 했다.

이어 “비록 집회에 참석을 못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탄핵 반대를 응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다. 더욱 소리 높여 탄핵 반대를 외쳐달라”며 “2030 세대, 모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그 위에 국민이 있다. 이 집회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떳떳하게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서 보다 더 강력하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준비위

전 강사는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 식민 지배와 동족상잔의 비극 6.25로 약 300만 명의 희생이 따른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나라가 이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자랑스럽지 않는가”라며 “기력은 쇠하여 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집회엔 2030세대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2030세대들이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 좌우의 갈등과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존중하며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리고 45년 광복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기까지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싸워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리고 그분을 이어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들도 존경한다”며 “2030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한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과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하셨고,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상호조약을 통해 튼튼한 안보로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역사는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공과를 균형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탄핵정국 50여 일을 지내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후과정을 통해 실체를 알게 되었다. 탄핵으로 현재 안보책임자와 치안과 안전책임자도 없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전 강사는 “보수든 진보든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강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이 되어 2030세대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상식이 존중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할 것을 믿는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선관위의 많은 의혹과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정과 상실은 무너지고, 꼼수와 반칙이 팽배한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이제 전국 교회와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훗날 젊은 세대들이 되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여하지 못한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을 사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우호간 협력 속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튼튼한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군 이름으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북한공산당과의 전쟁에서의 희생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으며, 이분들의 노고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 강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공격으로 탄핵심판과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고 성숙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정국도 잘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장 돈독한 신뢰관계인 한미동맹처럼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가나안 성도 회복 프로젝트:
믿음을 완성하며, 시대를 주도할 비전을 찾고 무료로 가는 4박5일 바하 멕시코 비전 크루즈

VISION CRUISE



가나안 성도 회복을 위해 비전의 주인인 주님과 함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 에베소서 1:18

비전을 향해 비전의 항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이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이상적 교회를 찾아서 잠시 멈춘 분들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고 함께 완성할 곳을 만나면 활짝 피어나 믿음과 사명을 완성할 분들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분야 전문가가 되어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며,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12 주와 4 박 5 일 무료 비전 크루즈에 Dr. 샬롬과 함께 승선하실 '가나안 성도' 31 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완성하기 위한 크루즈!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완성하기 위한 크루즈!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완성하기 위한 크루즈!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찾고 완성하기 위한 크루즈!

31 가나안 성도 분 선정 무료 크루즈 초대

등록비와 혜택

교회 등록자 주일반 혜택
교재비 90불, (수강료와 멕시코 크루즈 비용 1,100불 전액 지원)

주중 화요일 저녁 7시 Zoom반 혜택
교재비 45불, 수강료 300불, 크루즈 250불 (50% 지원)

비전 크루즈의 2단계 일정과 장소:

1. 2월 9일- 4월 27일 (12주) 주일 1시 비전 찾기 과정
2. 5월 5-9일 4박 5일 크루즈 비전 실현 전략 세우기 과정

장소: LA 중앙일보 3층 690 Wilshire Pl #3FL, LA

Dr. 샬롬 김,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비전 크루즈 교재: [비전의 서], [나의 비전의 서],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

기타: [크로스 코드] [GOD THE CEO 최고 경영의 신], [생명의 서], 등 주님 주신 비전을 찾고, 그 실현을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하도록 도와 인생을 완성하도록 돕는 책의 저자

등록 문의:
비전라이프.교회
VisionLife.Church
www.VisionLife.Church
☎ 213-926-3425
VisionLife